

보도 일시	2022. 7. 14.(목) 14:00	배포 일시	2022. 7. 14.(목)
담당 부서	기후탄소정책실 녹색전환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현수 (044-201-6678)
		담당자	사무관 금병욱 (044-201-6690)

녹색분류체계 확산 위해 금융 및 산업계 실천 협약 체결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확산으로 녹색금융 활성화 기대 -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신속한 안착으로 녹색금융 활성화 및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녹색분류체계 확산을 위한 실천 협약식’을 7월 14일 오후 서울 중구에 소재한 밀레니엄 힐튼에서 개최한다.
-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0일 녹색경제활동을 정의하는 지침서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발표하여 녹색금융 투자 촉진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을 분류한 것으로, 녹색경제 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담겼다.
 - * ① 온실가스 감축, ② 기후변화 적응, ③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④ 자원순환, ⑤ 오염방지 및 관리, ⑥ 생물다양성 보전
- 이번 협약식에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적용성을 높이고 녹색금융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추진 중인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 기관이 참여한다.
-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은 정부(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위원회), 6개 은행(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과 4개 기업(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현대캐피탈)이 참여하고 있다.

- 특히 한국산업은행과 신한은행은 녹색분류체계를 활용한 ‘녹색 정책 금융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여 녹색분류체계의 일부 경제활동에 저금리 용자를 제공하고 있다.
- 이날 협약식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에 참여한 주요 은행 및 기업 대표들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협동 의지를 표명한다.
- 아울러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은행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금융상품 개발 등을 통해 금융권 녹색분류체계 적용 확산에 앞장설 예정이다. 참여 기업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신규 사업(프로젝트)을 발굴하고 관련 녹색채권을 발행하여 녹색금융 생태계 조성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 환경부는 협약에 참여한 기관의 시범사업을 통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시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보완사항 도출 및 유인책(인센티브) 발굴 등 제도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빠른 정착을 위해 시범사업 협의체 운영을 맡으며, 은행 및 기업을 밀착 지원한다.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우리 사회 전반의 녹색 전환을 이끄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겠다”라며, “금융권과 산업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한국형 녹색금융제도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협약식 개요.
 2. 녹색분류체계 확산 실천 협약서.
 3.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 추진계획.
 4. 시범사업 참여기업 녹색 프로젝트 추진계획. 끝.

붙임 1

협약식 개요

□ 배경 및 목적

- (배경) 친환경·저탄소 경제활동으로 자금을 유도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수립('21.12) 및 시범사업 추진 중('22.4~)
- (목적) 녹색분류체계 적용 확산으로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범사업 참여 은행·기업과 '실천 협약식(MOU)' 체결 추진

□ 협약식 개요

- (일시/장소) '22.7.14(목) 14:00 / 밀레니엄 힐튼 서울 그랜드볼룸
- (참석대상) 환경부 장관, 시범사업 참여 은행·기업 대표 등 약 30명
- (협약내용)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확산을 위한 상호협력
 - (환경부) 녹색분류체계 확산 지원 정책 발굴 및 시행
 - (은행·기업)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금융 활동(상품 개발 및 정보 공시 등) 및 ESG 경영 확대 및 관련 미래비전 제시

□ 세부일정(안)

구 분	소요시간	주요 내용	비 고
실천협약식 (60)	14:00~14:05(5)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14:05~14:10(5)	인사말씀	환경부 장관
	14:10~14:20(10)	녹색분류체계 소개 및 추진방향 영상	
	14:20~14:30(10)	참여기업 실천의지 영상	
	14:30~14:50(20)	협약서 서명 및 퍼포먼스	참가자 전체
	14:50~14:55(5)	기념촬영	
	14:55~15:00(5)	마무리 및 폐회	사회자

녹색분류체계 확산 실천 업무협약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환경부, 은행 및 기업은 녹색분류체계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본방향) 협약당사자는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2조(협력사항) 협약당사자는 다음의 역할에 대해 성실히 수행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성과가 극대화 되도록 노력한다.

1. 환경부 : 녹색분류체계 확산을 위한 지원 정책 발굴 및 시행
2. 은행 및 기업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금융 활동 및 ESG 경영 확대

제3조(상호협조) 협약당사자는 이 협약의 효율적인 수행과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긴밀히 협력하고,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4조(협약의 효력) 이 협약서의 효력은 상호 서명한 날부터 발생하며, 상호 동의하에 업무협력의 종결 의사를 문서로 통보하지 않는 한 협력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 협약서는 당사자 간에 서명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 **배경**

- 녹색분류체계를 금융·산업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제도화 기반 구축
 - 녹색분류체계의 실제 적용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 발굴 등을 통해 분류체계 보완·개선점 도출

□ **시범사업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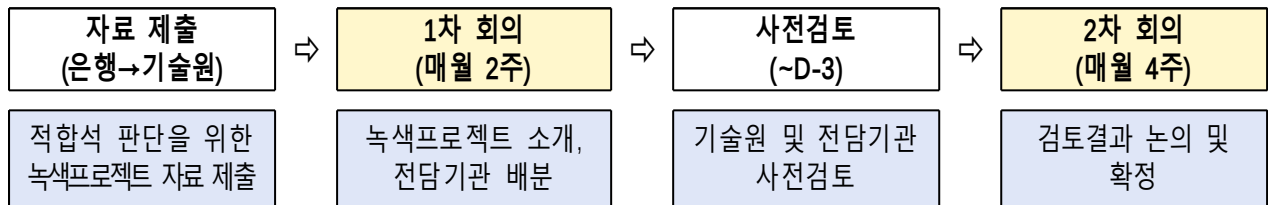
- (개요) 녹색분류체계의 시장 수용성 및 현장 적용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위·금융기관·산업계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시범사업 추진
 - 채권, PF 등 프로젝트 단위 금융상품에 우선 적용하고, 중·장기적으로 대출, 투자, 펀드 등으로 적용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연구
- (추진절차) 은행, 일반기업 부문별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공모(~3.31), 참여기업 선정(4.12), 녹색분류체계 적용 녹색채권 발행 추진(~11.30)
 - 환경부·참여기관·관계 전문기관 합동으로 협의체 구성하여 분류체계 적용사례, 주요 질의, 제도 기반 구축을 위한 필요사항 논의
- (참여기업) 은행 6개 사(기업, 국민, 농협, 산업, 신한, 하나), 일반기업 4개 사(남부발전, 중부발전, 한수원, 현대캐피탈), 전담기관 6개 사(표준협회, 품질재단 등)

<참여기관 역할>

구분	주요내용
환경부	• 시범사업 총괄 및 성과 관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시범사업 총괄 운영 • 제반 비용지원 등
참여기업 (은행, 일반기업)	• (은행) 녹색채권 발행 및 금융상품 분류체계 적용 확대 방안 연구 • (일반기업) 녹색채권 발행
전담기관 (온실가스 검증기관, 환경컨설팅사)	•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 지원 • 환경 분야 자문 수행
외부검토기관 (신용평가사, 회계법인)	• 녹색채권관리체계 외부검토 • 자금배분 적정성 검토

□ 세부 운영계획

- (구성) 환경부, 금융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참여기업, 전담기관 등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 구성·운영
 - (총괄협의체) 시범사업 추진현황 총괄 점검, 녹색금융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 논의, 정책제언 공유 등
 - (실무협의체) 시범사업 실무 진행, 분류체계 적용사례 연구, 공통 필요양식 개발 등 현안 사항 세부 논의
- (운영방안) 은행, 일반기업, 전담기관을 구분하여 협의체 개최
 - (은행) 녹색프로젝트 자산(여신, PF 등)을 매월 전담기관에 제출하여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 진행(매월 2회 협의체 개최)
 - (일반기업) 기업의 녹색프로젝트 및 자금조달 규모 확정 시 전담기관에 제출하여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 진행(기업별 연 3회 이내 개최)
 - (전담기관) 적합성 판단 진행 경과, 공통양식 개발 등(필요시 상시 개최)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녹색분류체계 금융권 조기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금융자산에 대해 녹색분류체계 적용·사례 연구를 통해 분류체계 이해도 제고
- 시범사업 결과 도출된 보완·개선점에 대하여 분류체계 개정
 - 주요 질의내용, 시범사업 운영 결과 등을 종합하여 녹색분류체계 해설서 발간
- 금융권 및 산업계의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발굴

□ 향후일정

- 시범사업 공동협의체 운영(5~11월)
- 시범사업 결과 보고 및 녹색분류체계 개정(~12월)

붙임 4

시범사업 참여기업 녹색 프로젝트 추진계획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용 녹색채권 발행 추진계획

기업/은행명	녹색프로젝트(예정)	발행금액(예정)	비고
한국산업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 / 풍력 등 발전사업 · 바이오매스 발전 사업 · 수소, 암모니아 활용 연료전지 사업 - 폐기물 순환경제 - 탄소중립 핵심기술 활용 소재·부품·장비 제조 · 무공해 차량(전기차) 2차전지 제조 등 	2,000억 원	
IBK기업은행		1,000억 원	
KB국민은행		1,000억 원	
신한은행		1,500억 원	
하나은행		1,000억 원	
NH농협은행		1,000억 원	
한국수력원자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양수발전 사업 -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500억 원	
현대캐피탈	- 친환경 무공해차량 금융서비스 (할부금융, 리스 등)	4,000억 원	
한국남동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 탄소흡수원 활용 '블루카본' 사업 등 -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200억 원	
한국중부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수욕장 복원공사(서천 동백정) - 친환경차량 운송 인프라 구축·운영 	400억 원	